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60:1-6 제2독서 에페소서 3:2,3,5-6 복음 마태오 2:2

◎말씀 < 기쁜소식 >

찬미예수님! 부제반 때의 일입니다. 저는 동기부제들과 함께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하루는 베들레헴의 ‘주님 탄생 기념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만 듣던 그곳에서 직접 미사를 봉헌하니 감동과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봉헌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한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복음은 아기 예수님을 뵈기 위해 길을 떠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메시아께서 탄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만 할 뿐, 기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헤로데는 아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처럼 똑같이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뻐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은 기뻐하지만, 그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소식이 아무리 ‘기쁜 소식’ 이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만난 메시아를 이웃들에게 기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미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기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나선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날마다 경배를 드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의 삶에 만족하며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얻은 은총과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비추는 ‘빛’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동방박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셨듯,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는 ‘별’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월5일(화)	성 존 노이만 주교 기념일		교 무 금	\$ 1,480.00
			주일헌금	\$ 882.00
1월6일(수)	주님 공현 대축일 후 수요일		미사예물	\$ 230.00
			성소후원	\$ 12.00
1월7일(목)	주님 공현 대축일 후 목요일		사회복지	\$ 53.00
			성물방	\$ 319.00
1월8일(금)	주님 공현 대축일 후 금요일		기타수입	\$ 0.00
			주님성탄대축일	\$ 613.00
1월9일(토)	주님 공현 대축일 후 토요일		합 계	\$ 3,589.00
1월10일(일)	주님 세례 축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54명
교무금 봉헌자	김팔봉(11-12월) 임태운(9-12월) 김화연(4-12월) 류승교(10월) 이상인. 전우성(12월) 김계숙(1월/21년)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일헌금과 교무금 -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의 정성

우리는 교회에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함으로써 하느님께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이러한 헌금과 교무금으로 교회가 유지됩니다. 교구와 본당의 다양한 사목 활동, 단체 보조, 그리고 본당 시설 확충과 유지 및 보수, 그리고 본당 사목자 생활비와 직원 인건비 등 교회 활동 전반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헌금과 교무금은 우리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신자들은 주교회이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65조)

주일 헌금은 우리가 미사 중에 성찬 전례의 시작인 예물 준비 때에 바치는 봉헌금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신자들이 성찬 전례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교회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물건들을 바치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주일 헌금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자기희생의 상징**으로서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금입니다.

교무금은(개신교는 교무금 대신에 십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신자들이 저마다 스스로 정한 대로 내어놓는 헌금입니다. 교무금은 주일 헌금과는 달리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을 단위로 그 액수가 책정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매달 나눠서 봉헌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교무금을 얼마큼 내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의 30분의 1을(한 달 수입 중에서 하루만큼을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 봉헌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정성껏 하느님께 봉헌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내는 교무금은 모두 세금 감면 대상입니다. 교무금뿐만 아니라 감사 헌금, 자모회비, 사회복지회비 등 본당에 개인 이름으로 낸 기부금은 모두 그 대상입니다. 본당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본당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 정산을 할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금과 교무금을 정성껏 바침으로써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이름으로 이웃에게 자선을 베풁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루카 21,3-4)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 배미성.오틀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신상철.사무엘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최진우.프란치스코 영혼	송돈희.요셉	생	본당교우들의 영육간 건강	김귀태.안셀모
			생	이호순.수산나 건강회복	류가브리엘라
생	장영란.젬마, 박모란.글라라 김예빈.글라라 건강회복	임정남.실비아	생	요셉회.안나회 어르신들 영육간 건강	이순자.요안나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생	감사미사	박프란치스코가정

간 장 종 지

◎새해인사◎
우리나라 해는 포항 영일만에서 불끈 솟아
김제 만경평야를 두두 흰히 비춰 주시니 그것만도 고맙고 반갑지만요.
해남 땅 끝 마을에서 두만강변 수용소까지
또 두루 비추시고 흰히 밝혀 주시니
하느님, 참 염치없고 송구하고 부끄러워
새 아침에도 고개 숙여 두 손 모읍니다.

마중기.노렌조 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Print N Signs</p> <p>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성당 FM주파수 107.9 (야외미사)</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미사안내

주일미사:오전 10시(교중미사) 야외미사

(성당 FM주파수 107.9)

개인 차량안에서 안전하게 미사전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후 자발적인 정리정돈에 감사드립니다.

평일미사:온라인미사 (문의:각구역장)

오후6시(동영상), 오후7시30분(Zoom)

금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미사 없습니다.

집전:김원현.베드로 본당주임 신부님

2.성탄 사랑의 쌀 나눔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3.교무금봉헌

지난해 교무금은 어려우시더라도 완납해주시고 교무금봉투가 없거나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4.21년도 달력 배부중 (사무실)

기준:각가정당 1부 / 배부:금~일(11시~16시)

5.21년도 광고비(달력/주보) 납부바랍니다 (각\$150)

6.Donation Statement 신청안내

2020년 텍스리턴 관련 Donation Statement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7.St.Mary's 천주교묘소 한국섹션 완공안내

묘소완공:21년1월(예정)/안장:21년2월부터가능
선종하신 가족을 모실 교우분은 연령회장님께 미리 신청바랍니다. (신부님과 일정조율 필요)
문의:고원석.바로로 연령회장(916-813-4440)

8.감사합니다.

감사헌금:전우성(\$50)익명(\$20)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 10시(교중미사)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사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heck 발행시: ST. J.H.C.)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전례봉사	주님공헌대축일(1월3일)	주님세례축일(1월10일)	연중제2주일(1월17일)	연중제3주일(1월24일)
복 사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최진호.다니엘	최준우.루카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